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서양 근현대사의 주요 국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 당대 최고의 역사가들이 쓴 17개의 역사 에세이를 수록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사의 주요 대목들을 소개하고, 알려진 주제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참신한 해석으로 서술하고 있다.

윌리엄 L. 랭어 역음

Copyright © 2006 by BookCosmos.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Publisher.

본 도서정보는 원저작자의 인가를 얻어 (주)북코스모스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전재나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하며,

원본 도서의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윌리엄 L. 랭어 역음 / 박상익 옮김

푸른역사 / 2004년 9월 / 795쪽 / 31,000원

■ 편저자 윌리엄 L. 랭어

미국의 저명한 외교사가. 하버드대학 역사학 교수 및 명예 교수를 지냈으며, 미국 역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다. 『제국주의 외교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세계사 백과사전 An Encyclopaedia of World History』 등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

■ 역자 박상익

우석대학교 역사문화관광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다. 역사·문학·종교의 학제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텍스트 없는 한국 사회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인문학 저술 및 번역 작업에 힘쓰고 있다. 밀턴, 칼라일에 대한 몇 권의 저서와 역서를 냈고, 역사학 대중화를 위한 한글 텍스트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언론자유와 경전 아래로 파기티카』(소나무, 1999),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 읽기』(부키, 2000), 『밀턴의 이해』(공저, 시공아카데미, 2004)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서양문명의 역사 1, 2』(소나무, 1994), 『토머스 칼라일의 영웅의 역사』(소나무, 1997), 『근대세계체제 1』(공역, 까치, 1999), 『호메로스에서 돈 키호테까지』(푸른역사, 2001)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서양 근현대사의 주요 국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책이다. 당대 최고의 역사가들이 쓴 17개의 역사 에세이를 수록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사의 주요 대목들을 소개하고, 알려진 주제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참신한 해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양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미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거의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사의 주요 대목들이 상당수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서양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재판 사건, 해외 관광 여행의 효시가 된 18세기 유럽 귀족들의 호화판 여행 풍속도, 그리고 토목·기계·조선·철도공학 부문에서 역사상 전무후무의 업적을 달성한 한 천재적 엔지니어의 파란만장한 삶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둘째, 이 책은 기왕에 국내 학계에 알려진 주제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 다른 참신한 해석을 내놓는다. 뉴턴의 종교는 어떻게 만유인력 원리 발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가, 19세기 로만주의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세기 네덜란드는 어떻게 막대한 부와 찬란한 문명을 동시에 창조할 수 있었는가 등에 대해 유려한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이 책은 역사읽기의 감흥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표트르 대제, 계몽주의, 나일 강 전투, 다윈, 마르크스, 트로츠키 등 서양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 수박 겉핥기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의 개설서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며, 독자들에게 뿌연 회색 이론이 아닌 살아 있는 역사읽기의 참 맛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 차례

옮긴이의 글

머리말

미래와 과거를 바라본 야누스 뉴턴

네덜란드 공화국의 황금시대

표트르 대제와 서유럽

우리 시대에 계몽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8세기 유럽의 그랜드 투어

고독한 방랑자 루소

로만주의의 반란

워런 헤이스팅스의 탄핵 재판

유럽 근대사의 흐름을 바꾼 나일 강 해전

서양 근대사 최고의 엔지니어 브루넬

찰스 다윈과 진화론

마르크스의 다양한 모습들

영국의 제국주의자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폭력의 시대가 열리다

아동의 역사

신화가 된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윌리엄 L. 랭어 역음 / 박상익 옮김

푸른역사 / 2004년 9월 / 795쪽 / 31,000원

미래와 과거를 바라본 야누스 - 뉴턴

가장 위대한 과학자 뉴턴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과학자로서 생애의 절정기에 역학(力學) 전체를 세 개의 간결한 운동법칙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말년에 접어들어 그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최소한의 본질적 명제들로 압축시켰다. 그는 언제나 말수가 적었다. 누군가가 어떻게 그 많은 발견을 해냈느냐고 뉴턴에게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간결하게 답했다. “언제나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그 자신의 표현을 빌면 “점차 빛이 떠오를 때까지” 며칠이고 한 문제에 몰입하도록 정신력을 집중했다. 이렇게 해서 떠오른 ‘빛’은 과학사를 통틀어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 됐다. 뉴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실제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만약 뉴턴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과학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뉴턴이 살아있던 시기의 이른바 근대 과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뉴턴 철학’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뉴턴이라는 한 개인의 이론으로 여겨졌고, 사실 상당 부분 그러했다.

물리학은 난해하고 복합적인 하나의 실체이다. 물리학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학문으로서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추정한다. 이렇듯 상반된 요소들을 결합하고 종합해낸 것, 그것이 바로 뉴턴이 한 일이었다. 근대 과학과 그 과학적 방법을 기계에 비유한다면, 뉴턴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여 그것이 지닌 가공할 힘을 증명한 것이다. 뉴턴은 위대한 천재였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재치 있게 표현했듯이, 그는 매우 알맞은 시기에 태어났다. 뉴턴이 태어난 1642년경, 과학혁명을 주도한 위대한 인물 중 네 명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철저히 분열되어 있었다. 지동설을 설파한 코페르니쿠스(1473~1543)는 그 무렵 이미 죽은 지 1백 년이 되었다. 베이컨은 1626년에, 케플러는 1630년에, 그리고 갈릴레오는 뉴턴이 태어나던 해에 죽었다. 그들의 뒤를 이은 다섯 번째 위대한 인물인 데카르트(1596~1650)는 1644년 철학의 기계적 원리에 대한 기념비적 논저를 출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 당시의 어법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낡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결속한 ‘새로운 철학자들’이었다.

폭발적으로 피어난 뉴턴의 재능

뉴턴 집안은 자영농으로서 울즈소프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뉴턴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이웃 교구의 목사에게 개가하여 뉴턴은 여러 해 동안 할머니 곁에서 자랐다. 그의 천재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활짝 피어났다. 1666년 말에 그는 미적분학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수학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였다. 또 빛과 색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진리도 발견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실험 연구 중 하나였다. 그는 떨어지는 사과를 관찰하다가 달이 마치 사과처럼 지구를 향해 지속적으로 ‘낙하’하는 물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낙하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설명할 수학적 방법을 고안해냈다. 물리학사상 최고의 발견인 만유인력의 법칙에 바야흐로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턴은 불과 24세의 나이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빛과 색채

뉴턴의 광학 연구는 기존의 색채 현상 이론과 데카르트의 새로운 기계론 철학에 결별을 고하는 것이었다. 젊은 뉴턴은 프리즘을 몇 개 구입해서 종전에 행해지지 않던 수준까지 실험을 밀고 나아갔다. 그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자신의 방 덧문을 닫아걸고, 덧문에 둥근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햇빛이 그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구멍 가까이에 프리즘을 갖다대어 반대편 벽에 스펙트럼이 투사되도록 했다. 벽에 비친 색채 스펙트럼의 모양은 둥글지 않고 기다란 직사각형이었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법칙에 의하면, 둥그란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야만 했다. 그런데 빛의 상단은 굴절법칙보다 더 많이 굴절되었고, 하단은 덜 굴절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스펙트럼의 세로 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그리고 광선 전체가 확실적인 규칙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광선의 부위에 따라 각기 상이한 규칙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뉴턴은 ‘다른 굴절률’을 지닌 광선들이 각기 다른 색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기존의 색채 이론에 의하면 프리즘은 균질적인 빛에 변화를 초래하여 색채들을 만들어내고, 이 변화된 빛을 한 번 더 굴절시키면 또 다른 색채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몇 번을 굴절시키든 파란색은 파란색 그대로, 붉은색은 붉은색 그대로 남는다. 이들 두 색을 포함한 일곱 가지 ‘기본 색상’은 아무리 여러 번 굴절시켜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프리즘은 순수한 백색 빛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색 빛의 상이한 부분들을 그것의 독특하고 고정된 굴절 각도에 따라 ‘분리’할 뿐이다. 뉴턴은 지극히 짧은 글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한 지 6년 후인 1672년, 그는 이 글을 과학계의 척도인 런던 왕립학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뉴턴은 이 일로 인해 분통 터지는 논쟁에 휘말려들게 된다.

뉴턴은 세계에 새롭고 위대한 발견을 가져다주었으나, 과학계의 거물들은 그의 발견이 그들의 낡은 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턴을 신뢰하지 않았다. 뉴턴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철학은 이론의 속박을 벗어던져야만 한다. 실험에 의해 검증된 사물의 성질이 기존의 이성적·철학적 원리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철학적 원리 -기계론을 포함하여- 에 의해 선형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뉴턴이 다른 사람들과 공적인 충돌을 벌인 첫 사건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사람들이 과학에 관한 질문을 하면 “나는 철학적 사변을 폐기해버렸다”고 답하곤 했다.

만유인력의 발견

뉴턴이 학계에 왕처럼 군림하기 전까지, 독재와 신경질은 그의 일생을 지배한 원리였다. 그는 1667년 트리니티 칼리지 펠로우로 선출되었고, 2년 후에는 루카스 석좌(碩座) 수학 교수로 임명되어 케임브리지에서 수도사 같은 생활을 했다. 그는 강연을 했지만 청중도 별로 없었고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친구도 별로 많지 않았다. 오류를 그토록 싫어한, 심지어 틀린 것으로 비치는 것마저도 싫어한 뉴턴에게 만유인력 이론은 성가신 골칫거리를 안겨주었고, 그는 이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곤혹스러워했다.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이론은 이성주의적 사상가들에 의해 거짓이고 위험스럽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이론으로 배척당하기 십상이었다.

울즈소프에서 어느 가을날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린 때부터 18년이 지난 후 그에 관한 책을 써 내려갈 때까지, 만유인력 개념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뉴턴의 뇌리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는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펴냈다. 그것은 바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1687, 흔히 줄여서 『프린키피아 Principia』라고 한다)였다. 만유인력 이론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은 물질의 중심부가 전적으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수백만 마일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물체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 당긴다’고 주장하는 점이었다. 뉴턴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룩했다. 이 ‘근본적인 발견’은 원심력법칙으로 알려졌다.

미래의 과학과 과거의 신앙을 바라본 아누스

뉴턴의 제자인 근대 과학자들은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에너지가 무엇인지, 하전입자(荷電粒子)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기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힘이나 에너지 같은 개념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실험에서 도출 가능하며 뉴턴의 정밀성 기준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원인’ 따위는 과학자들로서는 관심 밖이다. 뉴턴 자신은 그의 체계에 힘을 공급하는 신비스러운 미지의 원인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다. 뉴턴은 한 번도 공공연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영적이고 살아 있으며 지적이고 전능한’ 신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적 방법 -그것을 통해 과학은 자유를 얻었다- 은 우주의 지배자인 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뉴턴은 신의 섭리가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신이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지배하고 존속시킨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찾아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아누스와도 같이 뉴턴은 두 방향, 즉 ‘미래의 과학’과 ‘과거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뉴턴의 정신은 그가 살았던 시대, 그를 특별한 영웅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대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의 시대에는 바야흐로 신앙의 부재와 회의주의가 팽배하고 있었다. 신의 섭리를 옹호한 그의 주장은 결국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열렬한 뉴턴 추종자들은 중력을 ‘물질 고유의 성질’로 파악했고, 뉴턴적인 형태의 새로운 유물론을 부활시켰다. 뉴턴은 1727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기이한 성서적 예언과 그가 믿은 히브리 신으로 말미암아, 뉴턴은 그 무렵 흘러간 시대의 역사적 유물이 되어 있었다. 역사가들이 이 여명기를 ‘뉴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기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고독한 방랑자 - 루소

루소에 대한 집요한 왜곡

1778년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66세의 나이로 고통스런 삶을 마감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방랑자로 지냈다. 루소는 갑작스럽게 명성을 얻자마자 마치 범죄자인 양 유럽 대륙에서 쫓겨 다녔고, 신탁(神託)을 전하는 예언자라도 되는 양 의논 상대가 되었다. 그는 모든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고, 만년에는 거의 미쳐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었고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었다. 또한 고향에서도 추방당했다. 하지만 루소는 일생 동안 수많은 저서들을 출간했으며, 이를 통해 지극히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사회 비판을 쏟아냈다. 루소의 비판이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며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동시대인들에게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그는 『고백 Confessions』(1770)을 썼다. 이 저술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루소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선량하다는 것을 그의 비방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러나 사후 출간된 『고백』은 그에 대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루소는 적에 의한 희생자인 동시에 자기 폭로의 희생자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열렬한 추종

자들에 의한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의 비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자들 대부분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사상을 집요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루소의 저술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 그들이 루소의 사상이라고 여기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 뽑아낸다. 루소는 공포정치·히틀러주의·진보 교육·로맨틱한 사랑·자유주의·공산주의·나체주의·여가장주의(女家長主義)·스퀘어 댄스 부흥 등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일련의 사실들에 결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근대 문명에 대한 불안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고찰해보면 우리는 루소에게서 곤경에 빠진 근대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한 예언자의 모습, 고통 받는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심신이 허약하고 병든 데다가 사회 부적응자이기도 했던 루소는 인간 조건의 모든 질곡을 알았고, 그 고통의 본질을 표현했다. “만물은 창조주의 손에 맡겨놓으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타락하고 만다.” 『에밀 Emile』(1762)의 유명한 첫 문장에는 루소 사상의 정수가 농축되어 있다. 루소의 사상은 내적 일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감정적 확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아간다. 그의 사상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열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의 글이 갖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 때문이다. 루소가 근대 문명에 대한 인간의 불만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된 원인은, 그의 천재성뿐 아니라 그의 비참한 신경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루소는 1712년 주네브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여행이 취미인 시계공으로 아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켰다. 루소의 형은 소년 시절 가출하여 독일로 갔고 그 후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루소가 열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모종의 소동을 벌인 끝에 주네브를 떠나야만 했다. 모든 면에서 안정된 가정이 아니었다. 루소는 시계 조각공의 도제로 일하다 16세 때 그곳을 떠났다. 토리노에서 (돈을 얻는 대가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그는 그곳의 어느 귀족 집에서 잠시 종복으로 일했다. 그는 훌쩍 사보이로 떠났고, 여러 해 동안 상베리 부근에서 바랑 남작 부인이라는 낯선 귀부인의 집사이자 조수, 양자이자 정부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지냈다. 그녀는 루소의 종교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루소는 바랑 남작 부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그는 주네브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 매력적인 용모와 탁월한 재능으로 인해 루소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 중에는 대단한 세력가들도 있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유량 생활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었다.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품성의 순화에 기여했는가

루소는 한 서클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집단은 머지않아 계몽주의자 및 백과전서파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38세 되던 해인 1749년 여름, 그는 훗날 명성을 얻는 동시에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게 될 어떤 일에 우연히 끼여들게 되었다. 그때 루소는 문예잡지 《메르큐르 드 프랑스》에서 디종 아카데미가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품성의 순화에 기여했는가’를 주제로 현상논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읽었다. 루소의 <학문과 예술론>은 일등상을 받았고, 그는 새롭게 얻은 명성 덕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철학 부문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예술과 학문을 공격했으며, 네 발로 걷는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만일 예술과 학문이 인간을 행복하고 유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그것들의 목적을 왜곡시킨 사회 제도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정치경제학』(1755)에서 루소의 사상은 그 초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사회와 개인

오늘날 세상의 범죄와 고통에 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루소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루소 사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루소는 인간이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 아니라 자유 의지도 지니고 태어난다고 확신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구원은 집단적인 의지 행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집단적 의지로써 모든 개인의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 아래 국가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통치되며, 시민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선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은 자신을 전체에게 맡김으로써, 누구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이해 집단이 나머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우월감을 갖지 않는 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루소의 국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범죄와 고통에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반사회적 부적응자에 대해 관대해서도 안 된다. 이상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기본 사상이다. 이런 종류의 이론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회 부적응자에 의해 제안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루소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근대 정치사상에서 그의 주장의 타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약론』과 같은 시기에 씌어진 『에밀』에서 루소는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능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육성되고 계몽될 수 있으며, 선한 사회에 합당한 시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선함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근대 교육학의 토대를 놓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계약론』은 선한 사회, 즉 ‘집합체(a collective body)’를 다룬다. 이에 반해 『에밀』은 선한 시민, 즉 ‘개인’을 다룬다. 루소는 자신에 대한 몇몇 비판자들과는 달리 두 권의 저술 사이에서 아무런 모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 책은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극단적인 두 기질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시민적 미덕과 행동의 옹호자인 루소는 명상적이고 고독한 몽상가이기도 했다.

루소는 두 가지 역할 -완고한 애국주의자의 역할과 학교를 빼먹고 놀러 다니는 영원한 사춘기 소년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에 저항했다. 루소의 이런 점은 곧바로 동료 계몽주의자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루소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그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역시 루소처럼 사회를 비판하긴 했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숨을 쉬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루소는 점점 더 세상을 기피하고 사사건건 공격만을 일삼는 괴팍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양측의 노선 차이는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루소의 급격한 사회적 소외 때문에 두 진영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박해의 계절

『에밀』의 출간은 그에게 파국을 가져왔다. 계시종교와 교회의 권위에 대해 가차 없는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그는 가톨릭인 파리 소르본대학과 칼뱅주의인 주네브 종교법원에서 동시에 정치 당했다. 두 군데서 각기 루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루소는 스위스로 도피했고, 마침내 모티에(프로이센의 뇌샤텔 공국 소재)에 정착하였지만(1762), 괴팍한 버릇과 옷차림, 그리고 불경스럽다는 평판 때문에 거주 지역 주민들의 미움을 샀다.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에 돌을 던지자 루소는 모티에를 떠나



베른 지역의 비엔 호수 가운데 있는 성 베드로 섬으로 피신했다(1765. 9). 두 달 후 베른 정부는 그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사실 이 무렵에는 식물 채집과 뱃놀이만 할 뿐, 파괴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루소는 데이비드 흄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영국으로 갔다. 그러나 흄의 시골 저택이 있는 우튼에서의 체류는 두 사람 사이의 다툼(1766. 7)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흄과의 다툼이 있은 후 루소의 고독과 의심은 편집증적 증상을 띠게 되었다.

루소는 책을 출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프랑스 체류를 허락받았다. 그는 프랑스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마침내 파리에 정착하였고, 오랫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의 박해에 관한 생각에 침잠했다. 그에게는 지난 25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우주적 계획으로 비쳐졌다. 『고백』의 후반부는 이러한 편집증적 성격을 드러내준다. 물론 루소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는 사회에 대한 그의 반동적 성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임상적 설명만으로는 그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병폐에 대한 그의 진단을 무력화할 수도 없다.

예언자 루소

그가 사회적·도덕적 예언자로 급격하게 변화한 데 대한 가장 명료한 설명은, 파리에서의 충돌 후 루소는 자신이 진단했던 사회악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좀 더 기질이 강건한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치유책을 구하면서 사회악에 적응할 수 있었겠지만, 루소는 본성상 그런 체계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소는 바로 그 때문에 근대인이 가진 딜레마의 뿌리를 통찰할 수 있었다. 과학과 물질적 진보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신 또는 자연은, 인간에게 운명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기는커녕 운명을 개척할 수단을 베풀어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악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재능을 자유롭게 우애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루소의 처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자연으로부터의 인간 소외는 근대 문명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라는 그의 일관된 논점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지만이 그 도구라는 그의 주장은 그의 시대에도 진실이었지만 우리가 사는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루소가 예언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루소가 생각한 대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선을 향한 잠재력은 지니고 태어난다. 만일 의식적인 집단적 노력에 의해 그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멸망의 지점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찰스 다윈과 진화론

논란의 인물, 찰스 다윈

오늘날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영향력 -인간관과 세계관의 모든 구조에 미친 어마어마한 변화- 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 살아 움직이고 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과학과 종교 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은 오늘날에는 사실상 가라앉아서 화해하거나 무관심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다윈과 그의 저술에 관련된 논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다.

자연신학: 이성적 그리스도교의 버팀목

19세기 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대략 6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후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중심이자 목적이었다. 생명체들은 창조주의 손에 의해 물고기·짐승·조류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미켈란젤로의 저 유명한 프레스코화에서처럼 창조주가 뽀얀 손가락에 의해 생명을 얻은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은 이성적 그리스도교의 버팀목이었다. 이렇듯 자연사(박물학)는 19세기 전 반기에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그에 관련된 책들은 대중소설의 인기를 능가했다.

종은 항구 불변이 아니다

다윈은 과학자가 되기 전부터 자연애호가이자 수집가였으며 동시에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사실 그가 가업(家業)인 의학에도 소질을 보이지 않자, 그의 부친은 가문에서 가장 아둔한 아들을 교회에 보내던 그 당시 영국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다윈은 1827년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했다. 모두들 다윈이 식물 채집에 종사하는 또 한 사람의 빅토리아 시대 성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우연에 의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831년 영국 해군은 남반구 탐사길에 오르게 될 H. M. S. 비글호에 탑승할 박물학자를 구하고 있었다. 항해 목적은 남아메리카 해안과 태평양 섬들을 조사하여 일련의 크로노미터(chronometer, 바다에서 특히 경도(經度)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매우 정확한 시간 측정장치) 측정(測點)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며 케임브리지대학의 식물학 교수인 헨슬로가 다윈을 추천했다.

헨슬로는 다윈에게, 라이엘(모든 지표의 모양은 오랜 기간에 걸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개념을 널리 받아들이게 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생물 진화의 기초를 확립한 업적을 남겼다)이 최근 출간한 『지질학 원리 Principles of Geology』 1권을 추천하면서, 읽기는 하되 결코 믿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다윈은 항해하는 동안, 두 차례의 변화를 경험했다. 먼저 라이엘의 지질학 이론을 신봉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종의 불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멸종한 화석의 종들은 현존하는 동물들과 그토록 긴밀한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가? 무엇보다도, 왜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와 거북들은 섬에 따라 조금씩 변이(變異)를 보이고 있는가? 덕분에 섬 주민들은 거북을 볼 때마다 어느 섬에서 온 거북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 창조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단 종의 불변을 의심하고나자 그 현상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종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존속에 관하여』를 줄여서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이라고 한다). 그것은 대단히 독창적인 연구였으며, 자연 선택의 관점과 지질학의 거의 무한대한 시간적 조망 속에서 바라본 자연계의 거대한 파노라마였다. 『종의 기원』이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이성주의적 기독교 변증론 -자연신학- 을 일거에 파괴해버렸다. 자연신학은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전능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윈의 이론은 그것을 자연 선택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인간은 원숭이와 오랑우탄의 사촌이라는 것이다(유의할 것은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후손’이 아니라 ‘사촌’이라는 점이다). 『종의 기원』에서 원숭이는 다른 종에 비해 자주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윈주의는 ‘원숭이 이론’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다윈에 의하면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짐승과 다투는 고독한 지적 돌연변이일 뿐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다윈주의에서의 자연은 인간 행동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아무런 실마리도 주지 않았으며,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 인간은 더 이상 신성으로 총명한 자연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비전으로부터 그것을 창조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힘의 철학이 탄생하다

잔인성이 싫어서 총 사냥을 그만두었던 다윈이 19세기 후반 살벌한 힘의 철학을 탄생시킨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기이한 역설이다. 생존투쟁 개념은 분명 다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 관계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강화한 것은 다윈의 이론이 제공한 ‘과학적’ 틀이었다. 심지어 마르크스와 엥겔스마저도 다윈주의를 계급투쟁에 원용했다. 다윈은 『자본론』 영어판이 자신에게 헌정되는 영예를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며, 진화론을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변화된 지적 풍토

오늘날 일반의 관심은 진화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모아지거나 또는 인간의 지적 발달 -그것은 지식의 축적과 교류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수반한다- 이라는 요인이 진화론적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진화는 (우연적 변이의 산물이자 고통스럽고 맹목적인 투쟁적 창조의 산물인) 인간이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자기 운명의 조정자로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모험이 되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 -즉 유전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다윈 이래 생물학이 이룩한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다.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은 초기에는 새로운 과학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고, 다윈의 명성 역시 얼마간 하락했다. 그러나 그 후 유전학이론은 변이를 유전자의 변종에 작용하는 환경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러 선택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리고 선택 간에 인간의 물질적·지적 구조의 무한한 형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유전학 연구에서 핵심적 개념이 되었다.

마르크스의 다양한 모습들

철학자이자 로맨틱 휴머니스트로서의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이며, 독일인 학자이자 국제적인 혁명가였던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유복한 중산 계급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는 그가 불길한 미래의 운명을 단호히 선언했던 인구 많은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낡은 옛 도시 트리어였다. 마르크스가 품었던 꿈은 세계사적인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와 같은 세계주의는 그 세대의 특징이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마르크스를 맨 처음 혁명주의자로 변화시킨 동기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비참함과 공장의 불결함이 아니었다. 그의 세대가 갖고 있던 열정이 그를 혁명주의자로 만든 동기였다.

정치인으로서의 마르크스, 산업사회 분석가로서의 마르크스 이전에, 철학자이자 로맨틱 휴머니스트로서의 마르크스가 있었던 것이다(18세기 초의 유럽인은 조화와 균형, 정적인 질서, 고정된 인습, 그리

고 여러 사회 계급들에 기대되는 적합한 행동 원리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위의 시대였다. 로만주의자들은 이러한 장벽을 때려 부숴다. 모든 종교 교리와 모든 국가 제도를 ‘인위적’이라고 규정한 로만주의는 혁명과 불가지론을 초래했으며, 많은 개인들에게 고통과 우울증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인간의 사고 과정을 확대시켰으며, 일찍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자유·관용의 영원한 원리로 당연시하는 그것 -개인의 가치와 중요성- 은 로만주의의 반란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본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배운 철학은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본질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기로 이성적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자유롭다. 그리고 청년 마르크스는 현실적으로 노동자 대다수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산당선언』, 인간 정신의 갈망에 명료한 형태를 부여하다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저널리스트(《신(新) 라인 신문》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가 파리와 브뤼셀로 첫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파리에서의 마르크스는 이미 헌신적인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도시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가 사회의 구원자로 간주한- 의 실체를 독일에서보다 한층 더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비평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1848년의 『공산당선언』에서 그가 주장한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그들과의 지적인 투쟁 속에서 그들의 오류를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가운데 탄생한 것이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상주의적 철학자는 이제 역사가이자 사회과학자가 되었다. 『공산당선언』의 메시지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영속적 상대가 아니라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할 뿐임을 역설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공저자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루소와 링컨 -그들은 정치적 지향에 고전적 수사법을 부여한 드문 사례이다- 을 결합시켰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처럼 인간 정신의 갈망에 명료한 형태를 부여한 것이다.

19세기 최고의 역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프랑스를 뜨겁게 달구어놓은 마르크스는 수중에 한 푼 없는 신세로 두 번째 망명길에 올라 오염된 자본주의의 본산지 런던으로 향했다. 마르크스는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 행동가로서의 마르크스 생애 최고의 시절은 벌써 저만치 지나가버렸다. 바야흐로 근면한 연구자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다. 혁명 실패에 대한 분석 작업은 『자본론』의 경제 관련 항목들과 더불어 마르크스를 위대한 역사가로 우뚝 서게 해주었다. 마르크스의 가장 뛰어난 역사서술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수립된 단명한 공화정’을 쿠데타로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 그것은 역사 서술상 하나의 ‘혁명’이었다. 사회경제적 계급 개념을 정치적 고발의 일부가 아닌 역사학적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폴레옹 3세 체제의 특징과 성공에 관한 핵심을 찌르는 분석을 해냈다. 그는 또한 계급과 정치를 ‘초월’하여 국민 통합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파시즘적 독재자의 지위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다.

대학 교수가 되었어야 할 인물

마르크스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가정적인 인물이었으며 헌신적인 남편이자 쾌활하고 관대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거나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1843년 프로이센 정부관리의 아름다운 딸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했다. 그들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니, 라우라, 에드가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다. 런던에 도착한 직후 구이도가 태어났고, 두 딸 프란치스카와 엘레노어는 그 후에 태어났다. 자녀들 중 셋이 죽었는데, 그 중 구이도와 프란치스카는 첫 돌이



되기 전에 죽었다. 마르크스는 특히 아홉 살에 세상을 떠난 에드가에 대해 애통해했다. 딸들에게 그는 관대하고 매혹적인 친구였다. 마르크스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랄 것이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전혀 다른 모습 -오만한 성격에 무자비한 연설을 뽐어대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현실 정치인- 으로 알고 있다.

혁명 이념에 철저히 헌신한 마르크스는 망명자로서의 생애를 보냈다(물론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일 망명자들을 조직화하고, 영국 노동계급 지도자들과의 합작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마르크스가 이끈 단체의 공식 명칭은 '독일노동자교육협회(German Worker's Educational Society)'였으며, 교육적 측면은 이 협회가 정치와 아무 상관없던 때에도 진지하게 간주되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모든 주요 언어를 읽을 수 있었고, 자연 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당연히 기술 분야에도 흥미를 느꼈다. 특히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는 수학 계산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젊은 추종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정치이론가' 마르크스 뿐 아니라 놀랍게도 '교사'로서의 마르크스를 보게 된다.

황금 송아지 숭배를 질타한 예언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한 것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였다. 그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잉여가치를 -노동자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고 자신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고도로 추상적인 경제 분석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본주의적 경쟁 및 생산 모델에서 연역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파멸적 경제 위기의 불가피성과 대중의 궁극적 반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이 같은 반란을 요청하고 그 성공을 예견한 바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사회경제학의 평결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황금 송아지 숭배를 꾸짖으며 '기계 몰록'에 인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질타했다(몰록(Moloch)은 셈족이 섬기던 신으로 한때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신을 믿었다. 원래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명계의 왕으로 알려졌고 가나안에서는 태양과 천공의 신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 제사 지내는 인신공회를 많이 행했다). 그에게 궁극적인 악이란, 정신과 영혼이 잔인한 물질의 지배에 종속되는 것이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권력 추구의 비합리적 충동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 처녀작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1933)에서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썼다. 이 필명은 그에게 매우 잘 어울려서 친척 이외에는 본명이 블레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였다)의 『1984년』은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다. 그는 사실과 허구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현대 논객의 뛰어난 문체와 고전적 모럴리스트의 냉소적인 초연함을 결합시켰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단번에 요약하기 위해서 자기 작품이 완성된 해인 '48'을 '84'로 뒤집어 제목으로 정했다. 《라이프》지는 1949년에 딘(Abner Dean)의 만화 삽화와 함께 최초로 이 작품을 발췌 게재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1984년에 이르면 좌익 전체주의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메시지를 접했다. 오웰이 발견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운영자들이 분별력을 갖추기는커녕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 비합리적 충동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충동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 대 권력

소설로서 『1984년』은 우화에 가깝고, 우화보다는 오히려 판타지에 가깝다. 『1984년』의 플롯은 윈스턴 스미스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외부 당의 일원으로서 당의 지령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과거를 고쳐 쓰는 임무를 견딜 수 없어서 혼자 지내기를 원한다. 물론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범죄이다. 모든 당원들의 집에는 양방향 텔레스크린이 있어서 각자의 행동과 사상을 규제한다. 윈스턴의 ‘타락’은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기에 기록’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애정 행각’을 벌인 것이다. 청년반성동맹(靑年反省同盟)의 회원이면서 이단적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줄리아는 윈스턴과 은밀한 접촉을 갖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는 오브라이언의 속임수에 넘어가 국가 모독 음모를 꾸민다. 오브라이언은 내부 당의 당원으로서 지극히 이성적인 관념론자이다. 그는 윈스턴을 고문해 줄리아를 배신하도록 하며, 소설 말미에서 궁극적으로 그녀 대신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만든다. 빅 브라더는 당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기 영속적 국가 기구의 상징이자 정점이다.

오웰은 20세기에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회과학의 두 주요 분야인 경제학과 심리학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1984년』은 전후의 노동당 정부가 기진맥진해 있던 시기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에 그려진 사회가 ‘영사(英社, Ingsoc)’라는 이름의 정부 체제 아래 있기 때문에 종종 환멸을 느낀 사회주의자의 상처 입은 저항으로 해석되곤 했다. 분명 전후 런던의 모습 -식량 배급과 물자 부족, 그리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이데올로기 정부의 끊임없는 권고와 훈계- 은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배경이 되었다. 오웰은 BBC에서 전시 선전방송을 맡아보면서 『1984년』을 구상했다. 그는 BBC 관료제 내부의 분류와 왜곡, 아이디어의 탕진을 목격하고 경악했으며 그곳을 ‘매음굴과 정신병원의 혼합체’라고 표현했다. 1943년 오웰은 그곳을 떠나 정치해설가로서 자유를 되찾았다. 『1984년』을 쓸 당시 오웰은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1984년』을 출간하고 7개월 후인 1950년 1월에 이 병으로 죽었다.

오웰의 강점은, 정치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도덕적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진리는 개인이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바깥에서 얻는 경험에 기초한다는 그의 주장에 있다. 정치적 삶에 있어서 한 개인의 진리 추구는 순수한 ‘지성’의 기능이 아니라 낡은 이름을 지닌 ‘다른 무엇’의 기능이었다. 영국인들은 그것을 ‘품성(character)’이라고 불렀다. 정치평론가이자 건설한 리얼리즘 소설가로서 경력을 쌓던 오웰이 갑자기 『동물농장』과 『1984년』 같은 ‘우화’로 옮겨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강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문학 형식이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서양 문화에서 유토피아 신화는 에덴동산만큼이나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16세기에 토머스 모어(1477~1535, 영국의 인문주의자·정치가·대법관)가 리얼리즘을 부여할 때까지는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초기 휴머니스트로서 모어는 유토피아가 내세에서 현세로 옮겨질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톨릭교도로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부터 최후의 날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이르러 합리적 이상주의는 경험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바울의 그리스도교에서 불세비즘과 ‘위대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유토피아적이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만큼 권력 그 자체 때문에 환멸에 빠지고 타락해버린다. 모어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견지하려 한 휴머니스트였고, 오웰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려 한 사회주의자였다.

후대의 유토피아주의자들, 특히 기술이 내포한 기만적인 인간 해방의 잠재력에 현혹된 후기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의 경험과 철학적 완전성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웰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유토피아를 ‘디스토피아’로 바꿨다. 『1984년』에서 기술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새로운 기술- 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힘이 아닌 전체적 힘이 된다.

통제 수단으로서의 언어

오웰의 디스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은 언어이다. 자유와 평화의 신화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공허한 언어에 의해 생명을 유지한다. 가장 현란하고 문화적으로 통렬한 오웰의 창조물인 ‘신어(新語, Newspeaks)’는 오그덴(C. k. Ogden, 1889~1957. 영국의 작가·언어학자. 영어를 통일되고 표준화된 국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체계를 단순화한 기초 영어의 창시자이다)이 개발한 기초 영어(1926~1930년에 개발한 약식화된 형태의 영어는 원래 제2국제어로 쓰기 위해 만들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거의 쓰이지 않는다. 850개의 기본 어휘 항목 중 6백 개는 명사이고 150개는 형용사이다)를 희화화한 것이다.

오웰은 대부분의 정치적 저술이 조립된 문구들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관료적 완곡어법에 대한 교정책이자 하나의 언어 정화 수단으로서 그것(신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 정부가 기초 영어의 세계 판권을 구매하자 그 불길한 가능성을 깨닫는다. 오웰이 『1984년』의 부록에서 설명했듯이 신어는 언어를 사고에서 분리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했다. 잔존하는 단어들은 용납할 수 있는 사상은 표현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은 즉각 배제해버린다. 오웰의 작품에서는 ‘1984년’에 이르러서도 그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84년’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명령되고 관리되는 때이다.

초월적 가치에 뿌리내린 오웰의 사회주의

오웰을 반공적인 예언자나 일종의 신보수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1984년』은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다. 그는 우익과 좌익 양 진영에서 행해지는 집단주의의 위험성과 개인의 자유에 가해지는 위협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오웰은 죽는 날까지 사회주의자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사회주의란 특정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정강 정책으로 표방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오웰의 사회주의는 정의, 자유, 평등, 그리고 -물질적 가치·인간적 가치와 나란히 그 역할을 다하는- 정서적 공동체 등 초월적 가치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었다. 오웰이 『1984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순수한 절대적 인간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